

생명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잉태의 축복을 받은 국내외 성도들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중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육 간에 넘치는 축복을 받는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성령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등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아홉 가지 은사에 대해 살펴본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한 이스라엘 안드레 가지로우스키 박사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소원에도 응답받은 서미경 권사 간증.

만민뉴스

제658호 2014년 11월 2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우리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불임의 고통에서 잉태의 축복을 받은 국내외 성도들



◀ 결혼 10년 만에 얻은 아시프 나지르 목사의 아들, 마시아 아시프

결혼 12년 만에 낳은 딸 소은이와 함께한 장경혜, 김수 집사 부부 ▶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를 볼 때면 자상하고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의 고백을 올리게 된다는 싱가포르 피오나 성도, 파키스탄 이노센트 메시 성도, 인도 존 바브 성도, 대전 양창규 장로 가족(사진 1~4), 독일 예메 성도, 서울 조경자 집사, 일본 야마시타 이쿠미 성도, 춘천 임수희 권사 가족(사진 5~8), 파키스탄 아시프 목사, 이스라엘 류드밀라 성도, 순천 김옥자 권사, 서울 김효정 집사 가족(사진 9~12).

장경혜 집사는 딸 소은이를 볼 때마다 감회가 새롭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천주교인이던 장 집사는 결혼 후 12년간 아이가 없었지만 남편 김수 집사가 상사의 전도를 받은 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아이를 갖게 됐다. 이후 우리 교회에 출석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맨 오른쪽 가족 사진).

그녀는 과거 불임의 고통에 대해 “친구들이 임신했다는 말을 들으면 전 오히려 우울해졌어요. 게다가 동서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지면서 본의 아니게 제 눈치를 보게 만들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것 같아 힘들었지요.”라고 회상한다.

불임이란 아기 갖기를 원하는 부부가 1년간 별다른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졌

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현재 부부 일곱 쌍 중 약 한 쌍이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6년부터 5년간 심사결정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불임 진료 환자 수는 14만 8,408명에서 18만 4,576명으로 무려 24.4%가 증가했다. 반면,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32년간 아이를 가질 수 없던 수많은 부부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잉태의 축복을 받았다.

김옥자 권사는 17년 전, 아이를 못 낳아서 받는 어려움을 참지 못해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다. 응급실로 옮겨져 목숨은 건졌으나 온몸에 피진 농약 성분으로 인해 폐, 간, 신장부위가 썩어 들어갔고 의사는 가족에게 임종을 준비시켰다. 그런데 동생의 간청으로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고난

뒤 농약 중독을 치료받았을 뿐 아니라 결혼 21년 만에 잉태의 축복까지 받았다. 아들 선우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됐다(사진 11).

1993년에 개최된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 때에는 강사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고 수십 쌍이 한꺼번에 잉태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일도 있었다. 불임의 고통에서 잉태의 축복을 받아 영광 돌린 사례는 국내외에서 멈추지 않고 있다.

일본의 스키우라 하루코 집사는 온갖 의학적 방법을 사용해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막내딸을 대신해 이재록 목사에게 사진 기도를 요청했고, 믿음대로 예쁜 손녀를 얻게 됐다. 그런가 하면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잉태의 축복을 받은 주재규 장로, 최윤영 권사를 통해 일본 야마가타에 지교회가 세워졌고, 이후 불임부부들이 전도돼 잉태의 축복을 받았다.

또한 파키스탄의 아시프 나지르 목사는 나팔관이 막혀 잉태할 수 없는 아내의 상황을 전하며 우리 교회에 사진을 보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시공을 초월한 기도를 받았다. 이후 아내가 결혼 10년 만에 아들을 낳아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사진 9).

결혼 후 3년간 두 번의 유산과 불임의 고통 속에 살던 이스라엘의 류드밀라 성도는 이재록 목사를 만나 권능의 기도로 임신해 아들 솔로몬을 출산했다. 더구나 노산임에도 하나님 은혜로 순산하는 축복까지 받았다(사진 10).

다낭성 난소질환이 있던 싱가포르 피오나, 알렉스 부부는 현대 의술과 중국 민간요법, 중의학으로도 임신이 안 돼 고민이 컸다. 그런데 이재록 목사의 저서를 통해 많은 치료의 역사에 대해 알게 된 뒤, 부부가 우리 교회에 방문해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를 받고 잉태해 아들을 얻었다(사진 1).

하나님께서서는 “자식은 여호와 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시 127:3)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아이가 없던 수넬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보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잉태해 아들을 낳았다(왕하 4장). 수태하지 못하던 엘리사벳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늦은 나이에 세례 요한을 잉태했고,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서원 기도를 드려 사무엘 선지자를 얻었다.

오늘날에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기도를 통해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자녀들의 소원에 응답해 주고 계신다. 어떠한 문제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쉽게 해결받을 수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선이며 참 효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6절에 “아사 왕의 모친 마아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찢고 빵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말씀합니다. 태후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해 자신뿐 아니라 백성까지 우상 숭배를 하도록 미혹해 멸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에 아사 왕은 어머니라 해서 무조건 순종하고 맞춰드린 것이 아니라 태후의 지위를 폐해 버림으로 잘못을 돌아키게 하고 백성에게도 경각심을 갖게 했지요. 바로 이것이 참된 효도입니다.

아사 왕처럼 부모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헤드릴 때라야 진정한 부모를 공경하고 섬겼다 할 수 있습니다.

2. 생명 자체를 주신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할 것이고, 부모를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마음 다해 섬기지요. 다만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론,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그 윗대까지 모든 조상을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지으시고,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요. 사람이 잉태될 때는 부모의 정자와 난자로 수정되지만 그 근본된 생명의 씨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합니다.

더구나 육의 몸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잠시 거하는 장막집에 불과합니다. 몸에 깃들여 있는 영이 사람의 주인이지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생명의 씨 자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지식이 더해진다 해도 사람의 영혼을 복제할 수는 없지요. 혹여 세포를 복제해서 사람의 형상을 만든다 해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영혼을 주시지

않으면 그 형상을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므로 우리 영혼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 우리는 육의 부모에 대해서도 도리를 다해 섬겨야 하지만 생명 자체를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이요, 소중한 영혼임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양육하고자 힘쓰게 되지요(시 127:3).

3. 하나님을 사랑할 때 부모를 마음 중심에서 공경할 수 있습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윗분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 예를 다해 섬김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혹여 부모를 소홀히 대하지는 않았는지요?

때로는 무례하게 대하거나 연로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 하며 답답해하고 무시하는 말투와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했지요.

마태복음 15장 4~9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가로챘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취하려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녕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육의 부모도 마음 중심에서 사랑하며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을 깨달아 갈수록 부모의 사랑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 들어와서 죄악을 벗어나고 온전히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마음에 참된 사랑이 임합니다. 그럴 때 육으로 낳아 주신 부모에 대해서도 진심에서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 오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4.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부모를 공경할 때 임하는 축복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 20:12) 하시며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 대해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땅에서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부모를 공경한다면 그만큼 영혼이 잘됐다는 의미로 이렇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불의의 사고나 재앙도 당치 않으며 가정이나 일터, 사업터에도 항상 형통함을 입는 것, 이런 모든 축복을 다 포함해 생명이 길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구약 성경 룯기를 보면 룯은 이방 여인으로서 유다 백성과 결혼했지만 젊은 나이에 자녀도 없이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룯에게 새로운 행복을 찾으려 권했지만 룯은 며느리로서 섬김을 다하기 위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나오미를 따라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룯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큰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남편의 친척 중에 유복한 사람을 새 남편으로 맞게 하였고, 그 자손을 통해 다윗 왕이 나오미로 예수님의 계보에 그 이름이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룯은 주 안에서 중심으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영육 간에 넘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이라면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낳아 길러주신 부모는 물론, 부부간에도, 혹은 일가친척이나 이웃을 대할 때도 반드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룯처럼 착한 행실로써 사람 앞에 진리의 빛을 비추고 많은 사람 앞에 은혜와 덕을 끼침으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영광과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크고 첫째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마 22:37-40). 이 두 가지만 이룰 수 있다면 다른 계명도 능히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열 가지 계명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에 해당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공경해야 합니다

십계명에 나오지 않는다 해도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인 줄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육적인 의미로 공경하라는 뜻이 아니라 주 안에서, 곧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엡 6:1). 만일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주일에 교회에 나가지 말라는 부모의 뜻에 순종한다면 이것은 효도가 아니라 부모와 함께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진정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한다면 전도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6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3:00 PM 9: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열차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란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12장 4~11절에는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선물 중 특별한 이름을 붙인 아홉 가지 은사가 나온다.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에 대해 알고 간절히 구함으로 응답받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바란다.

01.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필요적절하게 사용함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신속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

이는 마음 안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으로, 성령은 상대에게 힘을 주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게 한다. 믿음을 심어 주어 천국 소망을 갖고 세상을 이기도록 인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한 만큼 받을 수 있으며(약 3:17~18), 이 은사는 큰 능력이 돼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된다.

02. '지식의 말씀'의 은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무장하려면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알 뿐, 참된 의미를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느낄 수 없다.

*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지 않으면 행함이 따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의 영적인 뜻을 바로 알고 깨우쳐 양식을 삼으며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다.

03. '믿음'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이 도와주셔야 한다. 머리로 아는 말씀을 행함으로 나타내야 하기 때문이다.

*

선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합당치 못한 것이 발견되면 선한 양심을 좇아 과감히 버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거나 살아 계시다는 증거를 보면 즉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믿음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04.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란 어떤 균에 의해서 발생한 질병을 기도로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

중한 질병에 걸렸다 해도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기도를 받으면 깨끗이 치료될 수 있다. 또 진리를 알지 못해 죄 지은 사람이라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 이런 경우에도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면 쉽고 빠르게 나올 수 있다.

05. '능력 행함'의 은사

능력 행함이란 불구나 선천적인 병을 고치거나 천기를 움직이고 사람의 성품과 성격도 변화시키는 등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베푸는 것이다.

*

이러한 능력 행함은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믿음의 4단계, 곧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깊은 단계, 곧 믿음의 5단계에 들어가기 위해 불같은 기도를 쌓으며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된다.

06. '예언'의 은사

예언이란 하나님 뜻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앞일을 예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람에게 앞일을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안위하기 위함이다(고전 14:3).

*

예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함 가운데 이뤄지기 때문에 예언하는 사람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이다. 이 은사는 기도를 많이 해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악은 모양도 없고 성결한 사람이라야 받을 수 있다.

07. '영들 분별함'의 은사

영 분별이란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서 이 은사를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성령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하나님 뜻을 좇아 행할 때 하나님 능력 안에서 영 분별을 할 수 있다.

*

온전한 영 분별의 단계에 들어가면 무엇이 신령한 것이고 육적인 것인지 분별할 수 있으며, 성령의 음성과 내 생각, 선과 악,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 또한 악한 세력에 접해 있거나 방해받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대처하게 된다.

08. '방언'의 은사

방언은 신앙생활에 유익해 하나님께서 성령받은 자녀라면 누구에게나 주기 원하시는 은사이다.

*

방언의 은사를 받아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잘 깨우칠 수 있다. 기도를 잘할 수 있고, 충만함이 더해 능력을 받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시험 환난을 물리치고 막아낼 수 있으며, 자신에게 가장 시급한 것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내 영과 하나님만이 아시므로 원수 마귀 사단이 훼방할 수 없다.

09.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는 성령이 충만해 감동을 받아서 방언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 은사는 성결의 단계에 들어간 경우, 혹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에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신다.

*

예언의 은사나 방언 통역 은사를 받으려면 생각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설령 하나님께서 주신다 해도 생각이 섞여 나오기 때문이다. 더구나 진리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은 사단의 역사를 받기 때문에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를 받을 수 없다.

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November

2014.11.2~11.8

◆ 십자가의 도 1-2

◆ 생명의 씨 2-4

◆ 믿음의 분량 1-5

◆ 보배 중의 보배는 믿음

◆ 창세기 강해 69-73

◆ 요한일서 강해 28-32

◆ 요한계시록 강해 38

◆ 축복권과 저주권 3 (이수진 목사)

◆ 정직한 자 1 (이미경 목사)

◆ 이 사랑 잊지 말기를 1 (이미경 목사)

◆ 영의 세계 21 / 기도 5 (이희선 목사)

◆ 생명수 2 / 믿음의 분량 3 (신동초 목사)

◆ MIS강의 21 / 사랑과 오해 (정구영 목사)

◆ 온 영을 이루기까지 (정명호 목사)

◆ 즐거운 요리 19

◆ 옛날 옛적에 10

◆ 모두 드려요 17

◆ 흥겨운 소리 9

◆ English 11

◆ 만민지킴이 7

◆ 알콩달콩 어버버 울동 5

◆ 찬양 드려요 12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39

◆ 향기 4

◆ 플로리스트 13

◆ 뷰티풀 라이프 11

◆ 회상 18

◆ 인도 연합대성회 3

◆ 2014 지역장, 조장, 구역장 교육 1-2

이재복 목사의 생명의 말씀

GCN TV설교

예능 프로그램

해외성회 및 교육

1577-2073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교회 창립 32주년을 축하하고자 이스라엘에서 한국을 방문한 안드레 가지로우스키 박사를 만민뉴스에서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만민중앙교회는 사랑 가득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안드레 가지로우스키 박사 (이스라엘, 55세)

- 홀로코스트 후원 연맹 및 이스라엘 이민지원 연맹 회장
- 산부인과·이비인후과 전문의
- 이스라엘 IT 사업 Media Network Intelligence 대표

::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비결은 무엇인가요?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기도에 의해 하나님께 드러졌습니다. 유대인이며 폴란드 태생인 저는 청년시절에 한 동료의 제의로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사 출신이라 당시 사업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믿음으로 받았고, '베풀기 위해서 우리는 반대!'라는 로고를 붙이고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 주시니 순식간에 600개 회사를 수하에 거느리며 수백억 원의 수익을 내게 됐습니다.

:: 이스라엘에서 만민중앙교회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저는 홀로코스트 후원 연맹 회장으로서 유대인 중에 가장 불쌍하고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그들을 위한 행사를 하는데, 2012년에는 홀로코스트 생존자 천 명이 모인 행사에서 만민중앙교회 이수진 목사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예능팀이 공연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행함을 통해 그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가 전하는 주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믿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 방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여기에 와서 보니 모든 성도님이 성령이 주관하시는 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만민중앙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보이는 분들마다 사랑의 힘과 평안이 충만하고, 천국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향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성결을 이루며 새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지요. 마치 천국에서의 생활을 이곳에서 연습하고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만민중앙교회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배우길 원합니다.

:: 이재록 목사님을 만나신 소감을 듣고 싶는데요?

이재록 목사님을 처음 보았을 때 느낌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설교 말씀이나 사전을 통해 목사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저는 살짝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부모의 사랑을 가진 아버지 같으셨지요.

저는 이내 그분의 사랑, 영적인 권세에 압도됐는데요. 그분은 모든 일을 사랑의 관점에서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는지 알게 됐지요. 아울러,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습니다.

박사님은 순수하시고,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이에게 전달하기 위해 존재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앞으로의 사역과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GCN 방송을 통해 이스라엘 뉴스를 방송함으로써 GCN 시청자들이 이스라엘과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GCN 방송을 전 세계로 방송함으로써 성결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방송이 된다면 이는 이스라엘과 지구촌 다른 지역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주님

서미경 권사 (2대대 20교구, 46세)

올해 저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는 어려운 살림으로 인해 돈을 벌고자 집을 떠나셨지요. 그 뒤 우리 가족은 27년간 어머니와 연락이 끊긴 채 살아야 했습니다. 신문에 광고하는 등 어머니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간절히 기도했고, 예배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해 주실 때 마음의 소원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27년 만에 어머니를 찾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올해는 온 가족이 어머니와 함께하는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냈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원망과 미움을 발견해 버리는 축복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지난 8월 4일, 만민 하계수련회 첫째 날 교육 후 은 사집회 때의 일입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전체를 위한 환자 기도를 받기 전, 저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통회자복했는데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했지요. 이어 환자 기도를 받을 때는 평소 눈이 작아서 쌍꺼풀을 원했기에 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받은 뒤 양쪽 눈에 쌍꺼풀이 예쁘게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심은 물론, 소원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섬세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정전 주소 및 연락처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새창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남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서양만민교회 충북 괴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신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055)687-6882, 010-3800-2048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광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안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4201 2073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경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3430-3312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7103-4097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430-3312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5526-5746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